

응답하라! 랜선 놀이 '공원'

# 나는야 매미나방

남산공원  
생태 6호

여러분, 숲길을 산책하다 보면 나무에 노란 털 뭉치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누가 이 털 뭉치들을 나무에 붙여 놓은 걸까요? 우리 함께 찾으러 가볼까요?!

앗! 이게 뭘까?



앗! 소나무 주변에 이상한 곤충이 있네요?!  
나무에 붙어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한참을 나무에 붙어 있더니  
소나무에 노란 털 뭉치를 만들어 놓았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나방'이  
이 털 뭉치의 주인이었네요!  
우리 이 '나방'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 넌 누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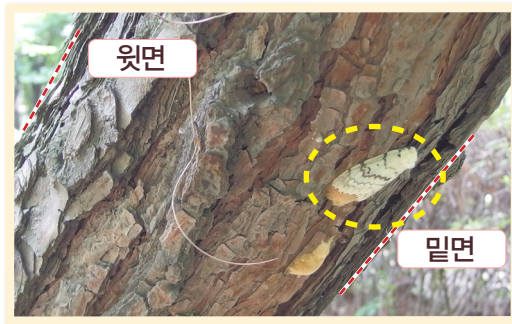
매미나방 암컷



매미나방 수컷

안녕! 나는 '매미나방' 이라고 해! 저 노란 털 뭉치들은 나의 '알'이란다!  
엄마인 나는 잘 날지 못해 나무에 매미처럼 꼭 붙어 있어~ 그래서 '매미나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

## 매미나방에게서 배우는 지혜!



나는 나무 밑면에 알을 낳아!  
왜 그런지 궁금하지?

비가 오면 알이 비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천적으로 부터 나의 알을 눈에 띄지 않고 안전  
하게 지키기 위해서지!

정말 대단하네요! 알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곳에 알을 낳는  
'매미나방'의 사랑과 지혜가 느껴지죠?

## 매미나방 한살이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

## 매미나방과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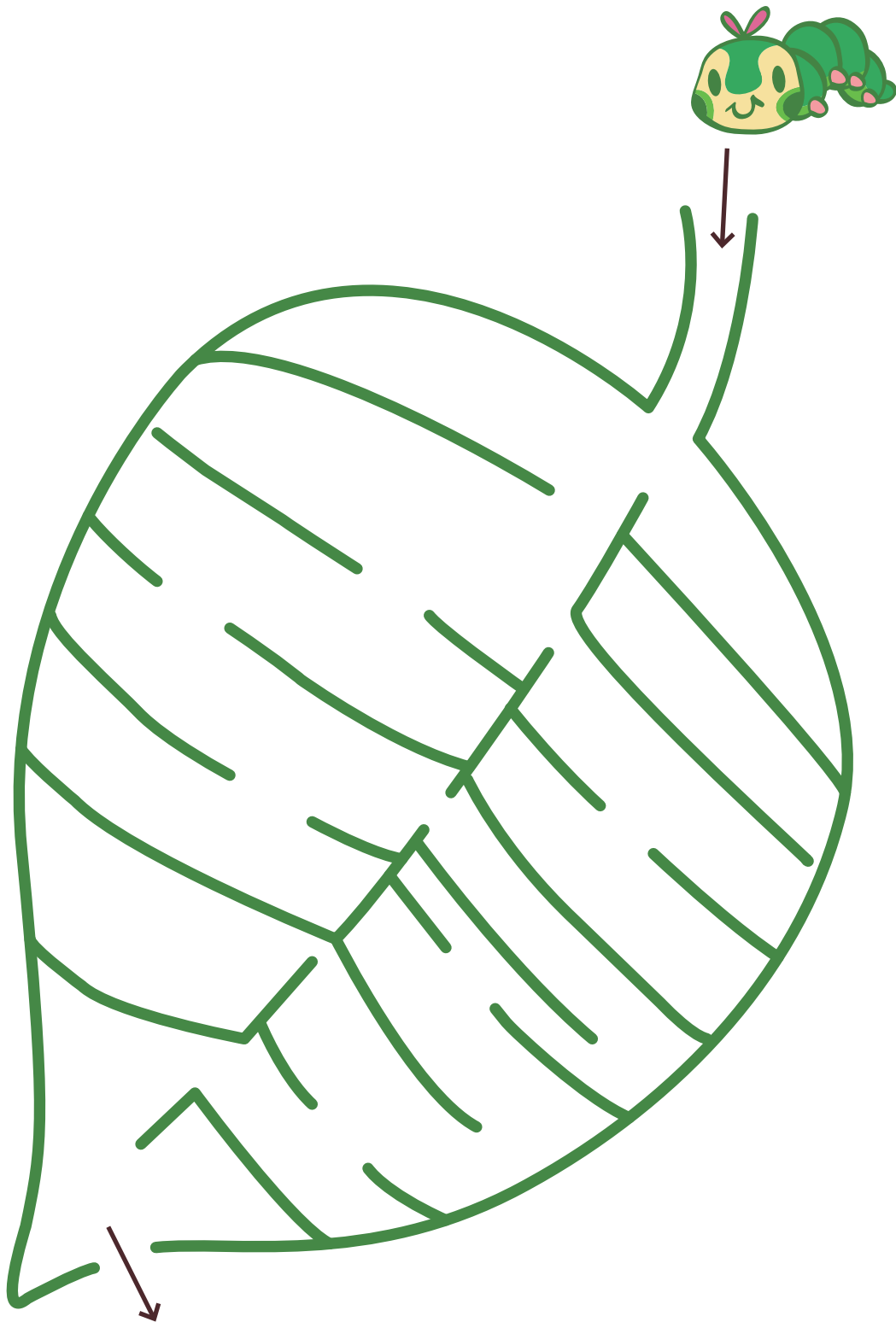


앗~! 누가 이렇게 알을 파 먹었을까요?

매미나방의 알과 애벌레는 새, 개구리, 기생벌에게  
먹잇감이 되기도 해요.

먹성이 좋은 매미나방의 애벌레는 나무의 잎을 모조리 먹어 숲에 피해를 주기도 해요.  
지구의 기후 변화로 지난해 겨울이 유난히 따뜻했던 탓에 매미나방의 숫자가  
많이 늘어 초록 잎을 모두 먹어 치우고 있어요.  
기후 변화로 너무 많은 매미나방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해요.

## 꿈틀꿈틀 미로찾기



만든이 : 공원여가과 코디네이터 김민숙  
도움 : 공원여가과 김윤희